

遊休農地 대리경작시켜 增産

쏬대통령 지시 “水脈圖 작성 가뭄대비 하라”

쏬斗煥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홍작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식량의 비축량을 연차적으로 늘리도록 하고 전국에 걸친 수맥도(水脈圖)를 작성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개별계획을 세우도록하라고 지시했다.

쏬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高建 농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소관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유휴농지를 영농희망자에게 대리경작시켜 식량증산에 주력하는등 유휴

농지가 없도록 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쏬대통령은 또 『5차 5개년계획이 실시되는 동안 주곡의 자급과 농어민 소득증대, 농어촌 복지향상을 위해 각별한 시책을 펴나가라』고 당부했다.

이날 高장관은 5차 5개년계획동안 농수산부문의 성장율을 해마다 3·3%씩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농수산부 첫 모내기 지원 利川, 본부직원 2백명 참석



高장관을 비롯한 농수산부 직원이 풍년을 원 모내기 작업을 하고 있다.

高建농수산부장관은 지난달 15일 농수산부 본부직원 2백명과 함께 京畿 利川군 大月면 長錄리 高禹鎭씨(54) 논 2천 6백평에 첫 모내기 지원을 했다.

高장관은 이날 모내기에 앞서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하고 튼튼한 모를 길러 올하는기 필요 풍년을 맞이하자』고 강조

했다.

한편 정부는 모내기와 보리베기가 접치는데 따른 농촌 일손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공무원, 학생, 군인, 예비군 등 연 4백만명을 동원, 전국적으로 농촌일손을 돕기로 했다.

모내기지원센타 설치

「품앗이」도 적극 장려

농수산부는 농민기를 맞이하여 부족되는 농촌일손을 효율적으로 돕고 도시 유희노동력을 체계적으로 흡수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市郡 단위에 177개소의 모내기 지원센타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또한 농촌일손돕기의 일환으로 우리 조상의 美風인 「농촌 품앗이」를 적극장려, 상부상조의 정신을 북돋기로 했으며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유희노동력에 대하여는 참여의식제고를 위해 기술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가을 벼베기 작업도 동일장소에서 실시키로 했다.

87년까지 주곡자급

쌀 4천 2백만섬
보리 9백85만섬

농수산부는 「주곡자급 7개년계획」

을 확정, 오는 87년올 주곡(主穀)자급목표로 잡고 쌀은 2%씩 증산, 4천 2백만섬으로 보리는 5%씩 증산하여 9백 85만섬 수준으로 올려 쌀과 보리를 완전자급키로 했다.

농수산부는 이를 위해 안전다수확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영농기계획을 적극 추진하며 석회 및 규산질 비료에 대한 정부보조율을 올려 지력을 증진시키며 농지전용을 적극 억제키로 했다.

한편 쌀과 보리는 지속적인 증산시책과 병행 소비생활을 합리적으로 유도하는 등 자급시책을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다.

중앙農政協議會 발족

건의사항, 施政에 반영

농수산부는 모든 농정에 농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키는 방안으로 농민대표가 대거 참여하는 중앙농정협의회를 발족시키고 지난달 2일 그 첫회의를 가졌다.

高建농수산부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농정시책이 농촌실정에 맞지 않을 경우 이를 일깨워 주면 솔직하게 받아들여 시정하고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이 나타나는데로 수시로 전화나 서신으로 통보해줄 것을 당부했다.